

# 1000명 함께 한 걷기... '탄소 줄이기' 희망 활짝

5년째 휠체어 지원 아동들 초청 임직원·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휠체어로 쉽게 갈 수 있어 행복" 걷는 즐거움으로 ESG경영 앞장



저축은행과 증권사를 운영 중인 상상인그룹이 '상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착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상상인 함께 걸어봄'이라는 주제로 '2022 상상인 피크닉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임직원 및 휠체어 사용 아동 가족 약 1000여 명이 함께하는 등 그동안 상상인그룹이 추진해온 ESG 활동인 장애 아동 대상 사회공헌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 탄소중립 캠페인 '걷기 프로젝트'를 결합해 주목 받았다.

### ● 기존 ESG 활동 결합한 피크닉데이

이번 피크닉 데이 행사는 '내 몸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자'는 슬로건 아래 마련한 탄소중립 캠페인 '걷기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이벤트로 마련했다. 임직원과 가족들의 일상 속 걷기를 장려해 건강도 챙기면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회사 측은 "그간 가까운 층 계단 이용하기, 근거리 도보로 출퇴근하기, 원거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등을 통해 실천해왔다"며 "건강도 챙기면서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함께할 수 있는 일석



상상인그룹이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2022 상상인 피크닉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상상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기업 철학을 실천했다. 개최사를 하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참가자 기념 촬영(왼쪽부터).

이조 캠페인"이라고 했다.

또 상상인그룹은 휠체어가 필요한 전국 만 6~18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휠체어와 전동킥트를 제공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2018년부터 5년째 진행하고 있다. 휠체어 사용 아동의 적극적인 신체 활동과 긍정적 삶의 태도 형성을 목표로 하며, 현재까지 약 2000여 명의 아동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이밖에도 휠체어 사용 아동의 재활과 운동을 지원하는 '신체 발달 프로젝트'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미술 멘토링 프로그램 '상상 아트'도 함께 운영 중이다.

5년째 따뜻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휠체어 사용 아동 가정은 이번 피크닉 데이 행사에 초청돼 더욱 뜻 깊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권원우 상상인그룹 ESG팀 대리는 "코로나19 이후 휠체어 사용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들과 가족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향후 아이들이 외부에서 활

발히 이동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 참가한 휠체어 사용 아동 가정들도 "그간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 아쉬웠는데 오랜만에 아이와 나들이에 나와 온 가족이 좋은 시간을 보냈다", "휠체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소와 코스를 마련해줘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이 됐다"고 만족해했다.

### ● 생활 속 ESG 활동 독려

상상인그룹은 피크닉 데이 행사를 통해 건강을 위한 걷기 습관 마련, 생활 속 탄소발자국 줄이기, 휠체어 사용 아동의 이동성 향상 및 사회적 발달 등 생활 속 ESG 활동을 독려했다.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출발해 약 3km 코스를 걸으며 자연 속 걷기의 즐거움을 몸소 체험했다.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웰컴 포토존 운영,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했으며 식사 및 휴식시간에는 라이브 버스킹, 매직 버블쇼를

바탕해 주사위 게임, 딱지치기, 투호 던지기 등 풍성한 볼거리와 미니게임도 마련했다. 휠체어 사용 아동의 안전한 참가를 위한 휠체어 정비 서비스와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체험 부스도 운영했다.

참가자 전원에게 생활 속 환경 보호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물품도 제공했다. 플라스틱병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로 만든 티셔츠, 생분해 봉투, 텀블러 및 피크닉 매트 등이 대표적이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상상인과 인연을 맺어온 휠체어 사용 아동과 임직원이 가족과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피크닉 데이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걷는 즐거움, 자연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을 되새기는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오른쪽)과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이 협약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증권-광운학원 상호협력 협약 건전한 투자문화·노후준비 교육 등 지원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은 광운학원(광운대, 광운인공지능고, 광운중, 남대문중, 광운초) 교직원 및 학생의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개인의 자산관리,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교직원에게는 은퇴 잔여기간 별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학생에게는 올바른 금융투자 개념 정립을 위해 맞춤형 금융교육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학교법인 간의 다양한 협업 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글로벌 투자전문그룹 자산운용능력을 바탕으로 광운학원 소속 모든 구성원의 올바른 투자문화 구축과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올바른 투자문화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6월 새로 선보일 차세대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통합 앱의 개시를 앞두고 사전 체험단(베타 테스터)을 모집한다. 미래에셋증권 통합앱은 국내 주식, 해외주식, 연금 및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투자할 수 있는 올인원 투자플랫폼이다. 참가 신청은 6월5일까지 미래에셋증권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총 5000명을 선정해 오픈 베타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플랫폼본부장은 "새 통합 앱은 국내의 금융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 다양한 글로벌 투자 니즈를 충족할 것"이라며 "고객중심 인터페이스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초기인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 롯데카드-SPC '해피 디지털카드' 내보

롯데카드가 SPC그룹과 손잡고 해피포인트 적립 특화 혜택을 제공하는 '해피 디지털카드'(사진)를 내놓았다.

파리바게트, 배스킨라비스, 던킨 등 전국 6500여개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10% 해피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교통, 학원, 할인점 등의 가맹점에서는 5%, 그 외 가맹점에서 최대 0.5%를 적립해준다.



5%를 해피포인트로 현장 적립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4월까지 이 카드로 해피페이, 해피마켓, 해피오더 이용 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0%를 해피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연다.

### 하나금융 제16기 스마트 홍보대사 모집

하나금융이 6월3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16기 스마트 홍보대사'(사진)를 모집한다.

추천과 농구를 중심으로 한 그룹 스포츠 단 관련 콘텐츠 기획, 하나금융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하나TV' 관련 콘텐츠 제작,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5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한다. 우수 활동 수료자와 팀에 조정의 상금과 향후 입사지원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을 실천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5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한다. 우수 활동 수료자와 팀에 조정의 상금과 향후 입사지원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 신한은행, 솔(SOL) 통해 '리틀 신한 서비스'

신한은행이 모바일뱅킹 신한 솔(SOL)을 통해 '리틀 신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미성년자 미리작성 서비스, 우리아이 맞춤 상품 보기, 아이·청소년 행복바우처, 증여 풀이 서비스 등 미성년자 금융 거래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종합 금융 서비스다. 미성년자 계좌 신규 시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자녀를 위한 금융 상품과 이벤트 및 금융거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늘의 날씨			24일(화)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17 30	16 24	14 31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21 31	15 31	15 30
광주 0/0	대구 0/0	부산 10/0	16 31	18 33	19 27
창원 0/0	제주 20/20	지역	17 30	18 25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31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24일 (화) 음력: 4월 2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b>쥐</b>	행운색: 흰색 길방: 서		<b>소</b>	행운색: 흰색 길방: 서		<b>호랑이</b>	행운색: 적색 길방: 남		<b>토끼</b>	행운색: 적색 길방: 남		<b>용</b>	행운색: 흰색 길방: 서		<b>뱀</b>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합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라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귀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고집을 부리면서 대화를 안하려 한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이루어질 것이다.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을 잘 보살펴라.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벌여놓은 일들은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b>말</b>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b>양</b>	행운색: 흰색 길방: 서		<b>원숭이</b>	행운색: 검정 길방: 북		<b>닭</b>	행운색: 검정 길방: 북		<b>개</b>	행운색: 흰색 길방: 서		<b>돼지</b>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매사가 풍선처럼 겉보기에는 아름답을 듯 하지만 그 풍선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금기야는 터지고 만다. 하는 일이 위축될 수 있겠고 자금난에도 봉착할 수 있어 수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겠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멋진 마무리의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다는 이루어진다. 취침 시 서남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결단을 잘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적이고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혼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